

“옛소련 고려인들의 역사 온전한 우리 역사로 포용해야”

광복 77주년... 고려인문화관,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1주년 세미나 홍상 제막식 “민족의식 상기 계승”...9월 15일까지 특별전 진행

광복절 77주년을 맞아 홍범도(1868~1943) 장군의 홍상 제막식이 15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다모아어린이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홍범도 장군의 항일독립투쟁을 비롯해 옛 소련 고려인들의 역사를 온전한 우리의 역사로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2일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1주년을 기념해 월곡 고려인문화관 ‘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김병학 고려인문화관장은 “홍범도 장군의 항일 독립투쟁정신 계승을 위한 고려인들의 노력”이라는 발제문에서 “고려인들이 160년을 유랑하며 이룩한 영광과 상처, 성공과 수난의 역사도 함께 우리에게 건네고 있다”며 “이를 우리의 온전한 역사로 포용하는 것은 민주·인권·평화를 지향하는 광주 시민사회의 이상을 앞당겨 실현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관장은 지난 1991년 광주일보가 카자흐스탄에 세운 ‘우스토베 광주한글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옛 소련에 의해 연해주에서 적박한 중앙아시아 땅으로 강제이주(1930-1937년) 당한 고려인 역사가 담긴 기록물 1만2000점을 수집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 김 관장은 “모국어 신문사 ‘고려일보’, 우리말극장 ‘고려극장’, 홍범도재단과 같은 단체나 기관은 홍범도 장군에 대한 기억이 표현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준 모체였다”며 “고려인들이 홍범도 장군의 애국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인들은 지금까지 홍범도 장군의 항일독립

투쟁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기억을 저장하고 형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가운데 가장 대중적이며 영향력있게 형상화한 것은 조형물 또는 구조물형태로 표현된 것이었다.

김 관장은 “홍범도 장군 묘지 단장(1951년)과 홍상 건립(1984년)이 바로 그것이었다”며 “고려인들은 민족 영웅 묘지의 성역화를 통해 기억과 역사를 존중하고 저항과 자유의 정신 그리고 민족 의식을 상기하고 계승해왔다”고 밝혔다.

한동건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은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항일독립투쟁정신 계승 방안”이라는 발제문에서 우당 이회영 선생의 장손인 이종찬 전 국경원장의 평가를 인용하기도 했다.

‘봉오동 전투에서 열세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 정규 사단 병력과 대적하여 승리를 쟁취하기란 쉽지 않다. 적군을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하여 일시에 적을 섬멸한 그의 탁월한 전술 지휘는 충무공이 한산도 대첩이나 12척밖에 남지 않은 배를 이끌고 명량 해전에서 승리한 지략에 견줄만하다.’

이날 세미나에는 홍범도공원 조성에 대한 의미를 조명하는 발표도 있었다. 박용수 고려인동행위원장은 “광주에 홍범도공원 조성 배경과 의미”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지난해 장군의 유해 봉환을 기념해 월곡 고려인마을에 조성되는 ‘홍범도공원’은 고려인 공동체를 포용하는 것을 넘어 광주 정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며 광주의 역사를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고려인문화관에서는 세미나 개최와 함께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1주년 기념 특별전’이 열렸다. 오는 9월 15일까지 열리는 전시실에는 올해 카자흐스탄 고려인 화가 문 빅토르가 그린 초상화가 비치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15일 건립된 홍범도 장군 홍상.

문 빅토르 화가는 조상들이 겪은 아픈 역사를 후손들이 잊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고려인의 역사와 인물을 주제로 한 그림을 오랫동안 그려왔다. 이 그림은 문 화가가 지난 2021년 봄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된다는 소식을 듣고 존경의 염을 모아 장군의 기상과 애국정신을 담아 낸 역작이다.

또한 전시실에는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와 홍상 건립 내력을 다룬 신문 기사(레닌기치 1984년 11월 21일자)를 비롯해 김세일의 장편소설 ‘홍범도’가 연재된 신문지면(레닌기치 1990년 3월 28일자), 연극 ‘홍범도’ (태정춘 작·1958년)에서 주인공 홍범도 역을 맡아 출연하는 리용수 배우의 사진 등도 비치돼 있다. /박성현 기자 skypark@

미래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

은암미술관, 26일까지 사진기획전

사진의 무한 상상력을 만나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이 오는 26일까지 사진기획전 ‘재현과 상상의 경계’를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박세희·이명호·이세현·이정록·최희정·황정후 작가와 네 명의 아티스트로 구성된 AES+F를 초대했다.

전시작들은 재현에 한정된 기존 사진 작품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이미지를 차용하고, 변용하면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는 작가들의 작품이다.

박세희 작가는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 포착한 이미지와 직접 수행한 경험 등을 담은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해석을 권유한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는 이세현 작가는 특히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에서 돌을 던지는 행위를 사진으로 담아내고,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역사성과 장소성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킨다.

수박 속에 담긴 굴, 키위를 품은 감, 연근을 감싼 배 등 서로 이질적인 이미지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황정후 작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객관적인 세계에 따지를 걸어 즐거움과 유희함을 전한다.

최희정 작가는 사진 매체로 이미지와 이야기기를 수집하고 사유한다. 지역을 기록하고, 기록된 지역의 시간적 프레임 안으로 순간적



황정후 작 'Fruit'

우연을 담아낸다.

AES+F는 타티아나 아르자마소바, 레프 예브조비치 등 각기 다른 분야를 전공한 아티스트 네 명으로 구성된 러시아 출신의 작가 컬렉티브다.

영상, 설치, 사진, 조각 등을 통해 관습적 사고에 대한 전복과 창조적 자유를 실천하는 이들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 고전 패러디 등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금남로를...대인시장을... ‘지나, 가다’

주안미술관 24일까지 사진전...송진주·정다은·이정은·한누리

대인시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 광주시 동구 지역이 품고 있는 문화자산, 자연경관, 생활의 터전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주안미술관이 동구 지역 아카이빙 사진전을 24일까지 개최한다. 광주 동구청이 시행하는 2022 미술관박람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기획된 전시 프로그램이다.

“지나, 가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동구지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4명의 젊은 작가가 포착한 광주의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참여작가들은 현장의 모습이 생생히 담긴 사진과 함께 그 사진들을 바탕으로 전시기법을 통해 캔버스에 사진 이미지를 담았으며, 미디어 영상 작업도 선보인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주안미술관 학예연구사이자 20여년간 동구에 살아온 송진주 작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지는 행사 모습을 담은 ‘몸과 마음의 문을 활기하다’ 등을 전시한다.

또 7년전까지 계림동에 작업실을 꾸렸던 정다은 작가는 ‘예술로 보는 대인시장’, ‘대인시장의 햇살’ 등을 통해 추억을 되새긴다.

울림동에서 살았던 유년시절을 그리워하며 가장 사랑하는 무등산의 풍경을 캔버스에 담은 이정은 작가는 빛깔이 만개한 홍림교를 담은 ‘동구의 봄’, 무등산 편백숲의 싱그러움 기운을 포착한 ‘조룩빛’과 장봉재, 증심교 등을 선보인다.



이정은 작 '초록빛 편백숲 무등산'

금남로를 지나 문화전당을 향해 걷다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 좋다는 한누리 작가는 학동 참사의 흔적을 담은 ‘철나의 아픔’ 등을 전시한다.

주안미술관(인스타그램 @juan_artmuseu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고려인문화관 ‘결’에서 오는 9월 15일까지 열리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1주년 기념 특별전’.

화사한 꽃과 사람들... ‘결의 미학’

이인호 개인전, 17~31일 화순 갤러리 아트 14

‘화면에 가득한 행복의 기운.’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한 이인호 작가의 그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건 역시 입체감이다. 작가는 다양한 재료적 실험을 통해 늘 새로움을 추구한다. 조각의 부조(浮彫) 작품처럼 느껴지는 그림들의 주 소재는 각양각색의 화사한 꽃들과 인물. 돌출된 화면은 풍부한 질감과 함께 생명의 약동하는 기운을 잘 전해준다.

이인호 작가 초대전이 17일부터 31일까지 갤러리 아트 14(화순군 능주면 죽수길 82)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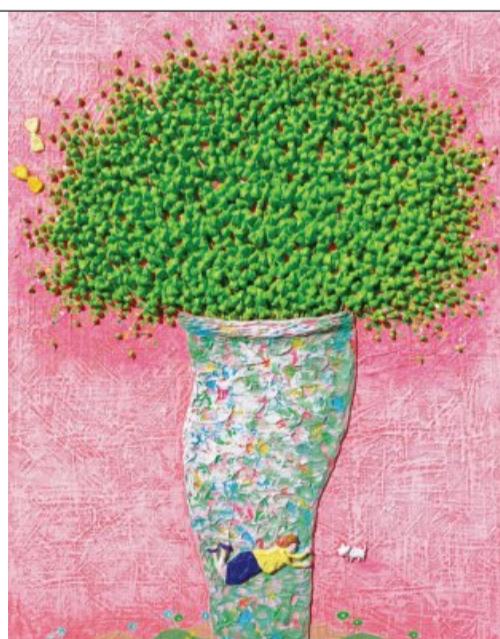
‘결의 미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이 작가의 최근작 14점이 전시된다. ‘기쁨(Pleasure)’, ‘행복(Happiness)’, ‘순수

(Purity)’ 등 작품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그의 작품들에선 파스칼과 정겨움이 묻어나며 따뜻한 삶에 위로와 힐링을 전한다.

유치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이 작가는 그 시절 마음에 담았던 아이들의 순수함을 화면에 담았으며 고양이, 강아지, 새, 나비 등이 어우러져 정겨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작품의 색감 역시 화사하고 따뜻한 기운이 물씬 풍긴다.

호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이 작가는 지금까지 37회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으며 광주시미술대전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이인지 갤러리아트14관장은 “이번 전시는 환상적인 자연의 세계, 비밀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초대장”이라며 “이인호의 작품을 통해 우리가 돌아



'My pleasure'

가고픈 향수의 풍경을 본다”고 말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서고운, ‘적벽가’ ‘수궁가’ 가야금 병창 무대

18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소리꾼 서고운(사진)이 제 709회 목요일국악마당(18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적벽가’, ‘수궁가’ 가야금 병창 무대를 선보인다.

이날 무대에 오르는 서고운은 9세에 국악에 입문해 광주에 살고, 전남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를 수료했다. 현재 진도국립민속예술단

상임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날 들려줄 가야금 병창은 박귀희제 ‘적벽가’와 ‘수궁가’로 박귀희제 수궁가에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인 문명자 명창이 30분 가량을 편곡했다. 이번 무대는 기존 곡에 ‘탑상을 탕탕’, ‘여보나리’, ‘한 곳을 바라보니’ 등 3곡을 더해 선보인다.

‘적벽가’는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이 주로 연주되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화음도도 도망가면 조조



채널 ‘빛고을국악전수관’을 통해 서비스된다. 문의 062-350-4557. /김민석 기자 mskim@

국악계 “개정 교육과정서 국악 소외...교과 연구 참여 중단”

국악계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악이 소외됐다고 반발하며 “음악 교과 2차 연구 참여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국국악교육자협회 등은 1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악 연구진은 더는 공정한 연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번 달 초 연구진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악계는 ‘장단, 장단의 세’, ‘시김새’ 등 국악 개념이 포함된 개념체계표가 2022 교육과정의 시안 연구에 빠져 있고, 음악 교과의 성취기준에서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악을 찾아 발표한다’와 같은 국악 관련 기준이 사라졌으며 반발

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국악 관련 내용을 예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반영한 1차 연구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전국국악교육자협회는 “이후 진행된 2022 개정 교육과정 2차 연구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핵심인 ‘성취기준’과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에서 여전히 국악 축소와 삭제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참석해 국악을 학교에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